

충남발전연구, 충남 공공디자인 계획 수립 워크숍 가져



충남발전연구원(CDI, 원장 김용웅)은 1월 22일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학계 전문가, 언론인, 충남발연 및 충남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워크숍"을 가졌다.

이번 워크숍은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충남의 전통문화와 공공디자인간 현대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충남 공공디자인의 비전인 「Renovate Chungnam」실현을 위한 전략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주제발표에 나선 강원발전연구원 추용욱 박사는 "공공디자인은 분명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개성과 창조성이 피어나지 못하는 등 계획과 현실 사이의 괴리감이 큰 분야다."라고 언급하면서 "예산 낭비식 행정정책을 과감히 버리고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지역 고유의 문화적 가치를 담아낼 수 있는 장기발전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추 박사는 강원도의 공공디자인 정책 추진사례와 접목하면서 "자치단체의 공공디자인

정책의 핵심은 3W 1H(Why, What, Who, How)이다. 즉, 왜 공공디자인이 필요한지, 무엇을 디자인 할 것인지, 누구를 위한 디자인인지, 어떻게 디자인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결해나가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충남의 공공디자인 추진전략"이란 주제로 발표한 남서울대학교 이광영 교수는 "충남은 유구한 백제역사문화를 보유하고 도청이전신도시 및 행복도시 건설, 그리고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 등 지속적 발전 가능성을 강점으로 갖고 있는 반면, 급격한 개발사업에 따른 무분별한 시가지 확산과 혼잡한 도시경관, 디자인산업 인프라 및 인식의 취약, 그리고 성급한 디자인정책에 따른 역효과 등으로 인해 공공디자인 정책 추진에 많은 애로점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에 따라 "충남이 효과적인 디자인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충남디자인총괄본부(가칭)를 시급히 조직하여 공공디자인 추진에 대한 목표, 추진전략과 체계를 갖추고 도시 전체 지구단위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남발전연구원, 충남도의회 행자위 2009년도 업무보고회 가져



충남발전연구원은 2월 5일 충남도의회 회의실에서 김용웅 원장을 비롯한 부서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09년도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업무보고를 가졌다.

이날 참석한 행자위 의원들은 "연구원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해진 만큼 도정의 핵심 싱크탱크로서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하고 언급하면서 "행복도시, 수도권규제완화, 허베이스피리트유류유출사고 등 굵직한 현안과제 해결에 만전을 기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김용웅 원장은 "산적인 도정 현안 해결을 위해 연구원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적시에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또한, 의정 발전을 위한 현안문제에도 관심을 갖고 연구하겠다."고 말했다.

“금강 역사·특색반영된 사업으로”

- 800여명 성황…사업방향·과제 등 놓고 열기



금강 살리기는 금강의 역사와 특색이 반영된 사업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금강 살리기의 파급 효과를 내륙부까지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는 대전일보사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2월 12일 오후 1시 30분 대전컨벤션센터 3층 컨퍼런스홀에서 충남발전연구원 주관으로 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금강 살리기 대토론회’에서 나왔다.

이날 토론회는 김용용 충남발전연구원장의 사회로 3가지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의 순으로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 강주엽 국토해양부 4대강 살리기 기획재정팀장은 “4대강 살리기 및 금강 살리기 사업계획이관 주제발표를 통해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우리 생활에서 ‘강’이 갖는 중요성을 주목하고 이를 회복해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에서 태동했다”면서 “4대 강 살리기의 하나인 금강 살리기 사업은 단순한 하천 복원 사업이 아니라 환경을 중시하는 생태하천 사업”이라고 역설했다.

금강 하류에는 환경기초시설을 확충하고 오니(汚泥)를 준설할 계획으로 하천 내 경작을 금지하고 백마강 뱃길을 복원하는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고 강 팀장은 덧붙였다.



이어 한상욱 충남발전연구원 연구위원은 '금강 살리기 연계 지역파급 효과와 발전전략'이란 주제발표에서 "금강 살리기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지자체에서 금강 살리기에 정책적으로 부합하면서 지역 특화 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종합화, 통합화, 블록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강 살리기 사업의 바람직한 방향과 과제'의 주제를 발표한 김명수 한밭대 교수는 "금강 살리기 사업은 최근 하천 복원 사업들이 보인 문제점을 극복하고 금강이 지닌 물류 중심, 문화적 가치,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방향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종합토론에서는 송기섭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등이 참여해 각 분야에서 금강 살리기 사업 추진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토론회에는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박성효 대전시장, 이완구 충남도지사, 이상민 국회의원, 송기섭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김용웅 충남발전연구원장, 육동일 대전발전연구원장, 신수용 대전일보 사장 등이 참석했다.

〈대전일보 2월 13일자 1면〉

충남발전연구원, 통계자료의 올바른 활용 방안 특강 가져



충남발전연구원(원장 김용웅, CDI)은 3월 2일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도청 정책기획관실 통계담당자인 조한석 박사를 초청, "통계법 개정과 연구 활용 방안"이란 주제로 특강 교육을 실시했다.

연구기관의 특성상 통계자료 작성 및 분석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이번 특강은 연구보고서 작성시 오류를 범할 수 있는 통계자료 사용 및 올바른 설문조사방법, 그리고 통계법 개정에 따른 주의사항 등 연구과제 수행시 봉착하게 되는 통계자료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한 의미있는 자리였다.

또한, 조한석 박사는 "충남을 비롯한 대부분의 지자체는 지속적 통계업무를 담당할 전문인력이 부족하고 공무원 순환보직 특성에 따른 업무 추진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하면서 "충남도에서는 종합적 통계조정 시스템 구축 및 제도 개선, 그리고 통계에 대한 체계적 교육 등이 포함된 충남통계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정책입안시 활용할 정확하고 실용적인 충남통계통합DB를 구축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충남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 두 마리 토끼 잡겠다

- 경제 불황 벗어나기 위해 정책 설정에 큰 힘 된, 녹색뉴딜정책 심포지엄



녹색성장산업 정책마련과 방안모색을 위한 "녹색뉴딜정책 심포지엄"이 충남도와 충남발전연구원(CDI) 공동으로 3월 28일(월) 도청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최영국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중앙정부의 녹색뉴딜정책 추진 방향과 과제"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녹색뉴딜정책'은 2012년까지 총96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 살리기의 핵심 정책임에는 틀림없다."고 언급하면서도 "녹색성장이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여 저탄소 녹색시대를 만들어 가는 것인데, 일자리 창출면에 있어서도 안정적 일자리, 고화력자를 위한 일자리 창출 등 장기적 관점으로 정책을 보완하여 수립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 녹색성장산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과 극대화 ▲국민 의식개선 및 녹색생활 시스템 마련 ▲녹색성장을 위한 산업구조 고도화 ▲SW 및 공간정보산업 추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람과 환경을 중시하는 녹색지향 사업 추진 ▲녹색국토공간 형성 사업 추진 지자체 및 시민단체, 국민 참여 지원 및 확대 ▲외국사례의 철저한 분석을 통한 벤치마킹 및 추

진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등이 철실히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상엽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은 "기후변화협약과 저탄소 녹색성장산업의 연계 발전 방안"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당면 과제다."라고 언급하면서 ▲대학 내 기후벤처산업의 활성화 ▲그린시티 구현을 위한 활발한 정책 지원 ▲기후관련 규제강화 등을 통한 녹색일자리 창출로 경기 침체에 대응 ▲국가적 형평성을 고려한 온실가스배출 감축목표 설정 및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장진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신성장동력센터 소장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녹색기술혁신정책의 방향"을 통해 "녹색성장의 핵심은 녹색기술 개발에 달려 있는 만큼 환경보호와 경제성장이 선순환되는 구조를 갖춰 진정한 '녹색성장'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저탄소 녹색성장 패러다임의 정확한 반영을 위해서는 녹색뉴딜 연구개발사업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고, 지역적 특성과 여건 및 기술혁신역량을 반영한 최적의 녹색지역혁신체제 (GRIS)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덕기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은 "녹색뉴딜정책 연계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탄소경제시대에 부응하기 위한 저탄소 녹색관광 개발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부상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단·중·장기적 발전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특히 부문별 단기 추진과제로 ▲저탄소 에너지 절약형 관광숙박업 육성 ▲에코시스템 기반 녹색 여행업 육성 ▲녹색 기술을 접목한 유원시설업 육성 ▲제로 에너지 그린이벤트 개최 지원 ▲환경친화적 관광개발 ▲홍보와 교육을 통한 녹색관광사회 전환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동완 행정부시자는 축사를 통해 "세계는 지구온난화로 환경위기와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대표되는 자원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녹색뉴딜사업이 향후 지구를 지키고 인류의 밝은 미래로 가는 초석이 될 수 있으며, 오늘 전문가 주제발표와 토론내용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신성장동력을 확보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도정의 정책방향과 전략을 구상하여 행정에 접목,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동완 도 행정부지사, 김용웅 충남발전연구원장, 발표자와 토론자로 나선 학계·언론계·NGO단체 전문가, 그리고 도 및 시·군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